

지식의 중심지 웨스트홀랜드

최근 많은 한국 기업이 헤이그, 델프트, 라이덴 및 주터르메이르 등 주요 도시가 소재한 웨스트홀랜드에 진출하고 있다. 이는 웨스트홀랜드가 이룩한 최첨단 기술 개발과 혁신적 개발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네덜란드 서부투자청(WFIA)은 웨스트홀랜드의 선진 기술 발전을 발판으로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외국기업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웨스트홀랜드에 소재한 델프트 기술대학의 항공우주공학, 전자공학, 응용과학 부문은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델프트 기술대학의 가장 성공적인 기술발전 성과 중 하나로 호주에서 열린 세계 태양열 자동차 경주 대회에서 4번이나 우승한 Nuna 태양광 자동차를 꼽을 수 있다. 또한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한 생명공학기술도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델프트에 소재한 네덜란드 화학기업 DSM은 생명공학 기술발전을 위해 공동 R&D 연구소를 개관할 예정이다. 필요에 따라 임대 기간을 정할 수 있는 인큐베이션 연구소 역시 대학과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웨스트홀랜드는 기타 생명과학 분야와 관련해 해외 투자자에게 다양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규모의 농업기술 개발이 현재 진행 중이다. 생산에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농업의 모든 분

야를 아우르는 기술 발전을 통해 웨스트홀랜드는 세계 농업기술의 중심지가 되었다. 최근 농업생명공학 부문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룩했다.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식량공급 확보를 위한 농작물 인공배양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라이덴 생명과학 단지는 서부유럽 지역의 의약품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생명과학 단지는 스키폴 공항에서 차나 기차로 이동 시 20분 정도 소요되는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많은 제약회사들이 단지 내에 자체 연구 개발 시설을 설립하고 있다. 미국의 센토코 올소 바이오텍 (Centocor) 및 일본의 아스텔라스 (Astellas)를 비롯한 수 많은 세계 굴지의 제약회사와 쿠루 셀, 바이오텍 파밍 (Pharming), 옥트플러스 (Octopus), 및 프로젠사 (Prosenza) 등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제약회사들이 입주해 있다. 의약품의 제품생명 주기가 바로 이곳 과학단지에서 결정된다. 레이덴 대학을 졸업한 언제든지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수 인재도 풍부하다.

웨스트홀랜드의 투자와 관련해 기술부분을 제외한 일반 사업 부문도 빼놓을 수 없다. 연방정부가 있는 헤이그에는 통신회사를 포함해 많은 석유 및 가스 회사가 소재하고 있다. SHELL社와 KPL 같은 세계 최대 석유회사들은 이미 수십 년 전에 헤이그에 지사를 설립했다. 북해 석유시추 인허가 및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등을 담당하는 기관과의 근접성은 기업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중국의 대표적인 정보통신 기술기업 ZTE 와 Huawei, 그리고 Total, 패트로 (캐나다), 사우디 알람코 등 다수의 글로벌 기업이 헤이그에 지사를 설립했다.

기존의 사업과는 다르지만 창의력을 요구하는 게임산업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정도로 성장했다. 현재 헤이그에 있는 수 많은 인큐베이션 연구소는 게임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발자와 퍼블리셔가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공조하고 있기 때문에 웨스트홀랜드 게임 산업의 미래는 매우 밝다 할 수 있다. 웨스트홀랜드에서 지적재산권이나 특허를 신청할 경우 과세율은 25.5%가 아닌 5%로 매우 낮다.

근접성, 과학단지 등 앞에서 언급한 것들이 유럽 시장 진출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웨스트홀랜드는 외국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이다. 서비스 비즈니스 센터 및 고속철도, 공항 그리고 도로 간